

논리실증주의 어법이 교육학이나 특수교육학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한 이러한 연구 관행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비고츠키 심리학은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적 어법에 대한 철저한 안티테제라고 볼 수 있지요.

예전에 특수학교가 연구발표를 해서 참석한 적이 있다. 주제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통합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생들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뭐 대충이런거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결과는 양쪽 집단 모두가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는 결과이다.

그때 나의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통합교육이라는 허울좋은 말 아래 우리 아이들을 특수학급으로 내 몰고 있는가? 집단(일반학교) 대 집단(특수학교)으로 만나서 아이들의 장애이해도와 자아존중감 등이 높아졌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특수학급으로 내 몰고 있는가?"

특수학급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안다. 특수학급 아이들에게 존중감이 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급에서 그 아이들은 존중감은 적다는 것을....

그것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 통합교육프로그램, 장애인식교육'을 끊임 없이 한다는 것을..

두가지 현상이 생긴다.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을 즐기거나...

차별을 즐긴다 함은 그들에게 특수교육대상자라는 명칭이 생기면 일단 열외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게 된다. 학교의 생활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 아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열외'라는 것은 아주 매혹적인 것이다. 이것을 교사 입장에서 '자존심을 가져라, 니가 손해다'라고 외쳐보지만 절대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을 위한 소리가 아닌 잔소리라고 취급하기 너무 좋은 말이 된다.

그 연구발표가 끝나고 누군가 이야기 하다가.."그럼 선생님은 통합교육을 반대하는거냐? 그러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수학급이라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나는 그런 식의 통합교육은 지금도 반대한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곤 6년정도가 흘렀다. 아직까지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찾을 수가 없다. 때론 선생님들이 나에게 묻는다. 왜 통합교육을 해야 하냐고...

어쨌든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야 한다. 거기는 통합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라고 이야기 한다. 정말 공감하는 말이다. 이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통합교육이라는 말'을 붙여 놓고 분리하여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계속 이야기 해 주면서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깐 너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말하며 자위하는 이 구조속에 답답하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비정상적인 구조의 최전선에 내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나라고 정의한다면

나는 이상하다.